

오늘의 투자-내일의 성공

ISO의 개도국에 대한 표준 지원이 국제무역 촉진시켜

“ISO Action Plan for Developing Countries 2011-2015는 ISO 개도국 회원들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표준의 이득에 관한 연구는 산업계의 신뢰를 강화시킬 것이다. <편집자>”



▲ ISO의 개도국에 대한 표준 지원이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표준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특히 그렇다. 표준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비관세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TBT는 표준이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WTO국가들이 개도국에게 표준과 적합성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ISO가 개도국에 국제표준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원하

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만은 아닌 것이다. 또한 모든 WTO 국가들은 각국의 이익과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개발절차의 초기부터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한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ISO의 지원은 빈약한 기술 인프라와 산업기반을 가진 국가들이 표준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표준절차 개발 중요성 커져

『ISO Action Plan for Developing Countries 2005-2010』을 통해 개도국의 1만 7,000명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이 이뤄졌다. 이러한 지원은 노미노 효과를 갖는다. 국가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확산으로 지역사회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서의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은 필수적인 기술을 얻게 된다.

이는 개도국에 자원과 기술을 제공하며, 개도국의 표준 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또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한다. 이 점에서 개도국도 국제표준과 적합성평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개도국의 국제부대에서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표준개발이 강조될 것이다. 개도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세계 시장의 진입이 확대되면서 표준개발 절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새 『ISO Action Plan for Developing Countries 2011-2015』는 ISO 개도국 회원들에게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결국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표준은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세일즈 등 연관 분야 전반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



표준연구가 산업계 신뢰 강화시켜

ISO는 2010년에 표준의 경제적 이득을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다양한 국가의 여러 기업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건축회사에서 표준으로 얻는 그들의 이익을 측정하는데 이 방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표준은 또한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세일즈 등에도 이득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표준의 이득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표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산업계의 신뢰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표준은 세계 시장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됐으며, 세계 각국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데 필수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